與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함께” 재확인

이낙연 “4차 논의 곧 시작…당정협의 서두를 것”
與 “피해 집중 계층 더해 전국민 지원금도 필요”
기재위 당정협의 취소…이견 해소 쉽지 않을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8일 4차 재난지원금의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 병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다면 보편 및 선별 지원의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위해 당초 이날 오전 예정됐던 당정협의는 돌연 취소돼 보편·선별 병행 지원에 반대하는 재정당국과의 당정 갈등설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필요하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정부와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방역 수칙 준수로 발생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당의 방침을 정부와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또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견뎌 온 국민들은 K방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데 일등공신이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경기 활성화 성격의 지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넓게 지원한다는 당의 방침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급 시기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달려 있다. 전국민의 협조로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가 지속되거나 4차 확산이 온다면 피해 집중 계층에 대한 선별지급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런 원칙으로 신속하면서도 유연하게 정부와 협의를 진척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당정 간에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연휴 이후 당정협의에서 확정한다는 시간표를 짰다.

하지만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간 당정협의는 돌연 취소돼 당정 간 이견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민주당 기재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등이 안건이었다.

그러나 시작 시간을 약 한 시간 여 앞두고 회의는 돌연 취소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홍 부총리 설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해 당정갈등설을 낳았다.

그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지금과 같이 재정의 엄중한 측면을 말하는 것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목소리라 생각한다”며 보편·선별 지원의 병행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주호영, ‘김명수 사퇴’ 딜레마에 “사법부 독립 해쳐…그냥 못 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6년 임기의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아무 관계가 없다. 누구든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된다”며 “사법부 독립을 앞장서서 해치고 중립적이지 않은 대법원장을 그냥 둘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신임 대법원장 임명을 고려해 사퇴를 추진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어느 정권이 임명하든 대법원장이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 대법원장이 사퇴 의사가 없음이 드러났다. 거짓말과 탄핵 거리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내일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인 시위를) 이어서 한다.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국민의힘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뒤 퇴장하고 있다.

與, 정의용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처리

野 “부적격” 회의장 퇴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8일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의 반대 속에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적격’ 입장을 표명한 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기권했다.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에 앞서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밝혔다.

야당은 정 후보자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실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현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 출신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정쟁을 유발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제1야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야당이 납득할 수 없는 발목잡기를 강행한다면 여당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응수했다.

정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떠나는 강경화 “3년8개월 어려운 고비 참 많이 넘겼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3년 8개월 가까이 되돌아보니 정말 어려운 시기도 많았는데 관계부처, 청와대와 협업해 어려운 고비를 참 많이 넘겼다”고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

강 장관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외교장관에 발탁돼 3년 8개월간 최장수 장관으로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이임식 없이 각

“두고두고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시간으로 기억”
“떠나기 직전 이란 선박 문제 풀려서 굉장히 다행”

강 장관은 이날 외교청사를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언론의 비판적인 질타도 있었지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운용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국을 돌며 직원들과 고별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떠나기 직전에 이란 선박 문제가 좀 풀려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차관과 국장, 영사실 직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현안을 하나하나 극복할 때마다 직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어 “제가 60 넘어 수십 년간 일해본 직장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두고두고 가장 제 인생에서 보람된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신임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선 “저는 떠나도 외교부는 영원히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관님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이미 하시는 분이었고, 잠시 휴식을 취하신 후에 재충전이 되어 아마 적극적으로 외교부를 이끌어 가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